

아시아·태평양지역

— 식물보호 위원회를 참석하고 —

국립 식물검역소

소장 하재규

지난 10월 27일 부터 11월 3일 까지 8일간에 걸쳐 亞細亞, 太平洋地域 국제 식물보호 위원회가 F.A.O. (世界食糧農業機構) 주최로 泰國 淸마이(chiangmai) 市에서 개최되어, 우리나라에서는 필자와 植物檢疫所仁川支所長 김병호박사가 국가대표로 참석하였다.

본 위원회는 격년제로 개최되며, 아세아 지역내 회원국 간에 農作物生産과 林産物生産에 장애요인이 되는 각종 병해충 및 잡초 除去, 旱

水害 예방조치 등 광범위한 식물보호 기술 및 정보의 상호 교환 또는 기술 및 자금의 지원을 목적으로만 들어진 F.A.O.의 주요 사업기구의



◇ 사진=좌로부터 F.A.O. 부소장, 두번째가 필자, 세번째가 새로 선출된 의장, 바른쪽이 김 병호 박사

하나이다.

이 지역내에 속해 있는 나라는 26개국(대만, 북한제외)이고 그 중 21개국이 會員國이고 5개국이 현재까지 非會員國으로 되어 있으나 본 위원회는 비회원국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1960年度 중반에 한두 차례 참석한 바 있었으나 그동안 계속 참석치 않다가 이번 제12차 회의에 초청을 받아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한 것이다.

1. 會員國과 非會員國

본위원회에 가입된 정회원국과 비회원국은 다음과 같다.

가, 會員國

- ① 호주 ② 방그라데쉬 ③ 인디아 ④ 인도네시아 ⑤ 라오스 ⑥ 캄보디아 ⑦ 프랑스 ⑧ 말레이시아 ⑨ 네덜 ⑩ 뉴질랜드 ⑪ 필립핀 ⑫ 홍콩 ⑬ 포르투갈 ⑭ 스리랑카 ⑮ 태국 ⑯ 파푸아뉴기니아 ⑰ 사모아 ⑱ 루지 ⑲ 베트남 ⑳ 버마 ㉑ 파키스탄

나, 非會員國

- ① 한국 ② 일본 ③ 싱가포르 ④ 중공 ⑤ 미국
이번 회의에는 중공이 처음으로

F.A.O.의 초청을 받아 참석했는데, 근래의 움직임으로 보아 다음회의까지는 회원국으로 가입할 것이 거의 틀림없으며 한국도 여러가지 의미에서 빠른 시일내에 가입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은 국가의 대표를 정식으로 파견 하지는 않았으나 농림성 산하의 열대식물 연구소의 간부직원을 참석시키고 있었다.

필자는 일본에서 비공식으로 참석한 히다가(日高博士)박사에게 일본이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물었더니 그분 말이 글썽 일본의 관계분야 학자들은 참석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적극성이 없어 오늘날까지 가입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혹시 일본이 아세아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을 무시해서 고의로 가입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냐고 깊은 곳까지를 찢어 보았더니, 여기와서 회의분위를 보니 그와 같은 오해가 있는 것 같지만은 (다른나라 대표에게서도 같은 질문을 받은 모양) 실은 일본 관리들이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행정가들이라 회의의 성격을 잘 몰라서 그럴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나름대로 몇가지 사유를 마음속으로 짐작해 볼 수 있었다.

2. 會議進行概要

위원회는 10월 27일 태국 청마이 시 소재 “수리랑스”호텔 회의실에서 참가 15個國 代表 56名과 英國의 C. M.I. 등 관련 國際 5개 機構가 參석 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개최식에는 F.A.O. 의장의 開會人事와 泰國 農林相의 축사, 대회주최의 경과보고 그리고 참석국 대표들의 紹介와 人事순으로 오전회의가 進行되었고, 오후에는 의장 선거와 分科委員長 선거가 있었는데 의장에는 泰國의 시아마난다(Syamananda)博士가 選출되었고 第1分科인 病者虫防除分科는 스리랑카의 Dr. Khan이, 그리고 第2分科인 植物檢疫分科는 호주의 Mr. Smee가 選출되고 곧 바로 각국 首席代表의 基調演說이 시작되었다.

각국 代表의 基調演說이 끝날때마다 그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제2일째 셋째번에 필자가 基調演說을 하고 뒤이어 준비해간 한국식물검역 현황에 대한 슬라이드 상영이 있었는데, 이 Slide의 내용에 대하여 호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원더풀을 연발할 만큼 자기 들에 매우 有用한 것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태국을 위시하여 몇 몇나라에서는 Slide를 자기들에게 주

고 갈 수 없겠느냐고 제의해 왔으나 어느 특정한 국가에게 주기가 어려워 그냥 가지고 돌아왔다.

사실 우리가 Slide를 가지고 가져 된 동기는 F.A.O. 東南亞地域 副所長인 Dr. Raddy가 지난 8월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한국의 植物檢疫을 紹介하는 자리에서 슬라이드를 보고 내용이 잘 되었으니 다음 회의에 꼭 가지고 와서 다른 나라 대표들에게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는 제의가 있어 가지고 갔었던 것이다. 그러한 동기에서 상영된 우리의 슬라이드가 예상외의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해서 제2일째까지 각 나라 대표들의 基調演說을 마치고 제3일째부터는 分科會議에 들어가 채택된 의제에 따라 토의 형식으로 회의를 進行하였다.

3. 韓國과 관련된 討議事項

가. 輸入植物의 原產地 소독에 對한 發言

현재 우리나라
發言要旨(한국)는 많은 原木, 穀類 및 과일을 지역 회원국내에서 수입하고 있는바 적지 않은 병해충이 발견되어 검역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가급적 원산지에서 소독을 철저히 해서 수출해 주기 바란

다.

發售糞旨(인도네시아, 말레이지)

한국의 제안은 생산국에서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되므로 귀국후 진지하게 검토하여 가급적 원산지에서 소독하도록 노력하겠다.

가. 네팔국의 새로운 병해충 발생에 대한 발언

발언요지(네팔)

현재 네팔에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어 이의 방제에 고심하고 있는데 이 병해충은 동북 아세아 특히 한국과 일본인에 의하여 전파된 것 같다.

답변요지(한국)

병해충의 자세한 내용을 밝혀 달라. 한국의 기술자 및 등산객의 식물성 화물은 한국에서 충분히 검역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병해충도 전파될 염려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다. 회원국간의 수출입 식물검역에 관한 발언

발언요지(인도네시아등)

회원국간에 있어서 수출입식물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위생증이 있는 식물은 검역을 생략하도록 하자.

답변요지(한국)

한국은 원목과 양곡 등을 많이 도입 하고 있다. 원산지에서 검역과

소독을 완료한 식물성 화물에 대해서도 많은 병해충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식물검역 위생증의 유무에 관계없이 수입식물은 계속 철저히 검역을 실시할 것이다.

라. 수출입 식물의 Container 수송에 관한 발언

발언요지(인디아등)

앞으로 식물성 산물의 수출입에 있어 Container를 이용하여 수송된 것은 검역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좋겠다.

답변요지(한국, 호주)

Container에 의하여 수출입된 식물성 화물도 검역을 생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콘테이너의 구조상 식물검역을 실시하기에 불편하게 되어있으므로 앞으로 콘테이너의 구조를 검역에 편리하도록 개조하는 등의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 수도의 새로운 해충 Rice gall midge의 지역내 확산에 관한 발언(Dr. Hidaka)

Rice gall midge가 현재 태국에서 발생하여 확산일로에 있으며 중풍의 남부지역까지 侵入하고 있다.

특히 한국, 日本, 말레이지아 등 隣接國은 본 害虫 예방에 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會議結果採擇

지면관계로 각국대표들의 기초연설 요지와 기타 주요 토의사항을 다 소개 할 수는 없으나 8일간의 회의 결과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채택 하였다.

가) 식물의 병해충과 잡초의 방제는 각 회원국의 정부차원에서 정보의 교환, 기술훈련, 농약시험 방제법의 개발 및 방제계획 등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

나) 농작물의 병해충 발생은 항상 긴급조치를 요하나 아직도 지역내 일부 회원국은 기술과 장비면에서 긴급방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들 국가들로부터 긴급지원 요청이 있을 때는 선진회원국은 장비와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 지역내 회원국은 살충제의 종류와 사용방법을 협의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내 1개국을 선정하여 살충제의 검사, 평가, 등록에 대한 기술자문을 하여주도록 F.A.O.에 요청키로 한다.

라) 아·태지역 식물보호 위원회의 특별 활동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개정된 협약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제13차 회의에 F.A.O 의장을 참석키로 한다.

마) 아태지역 식물보호 위원회의 업무증가와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F.A.O와 협의하여 기술수준을 더욱 전문화 시키기로 한다.

바) 지역내 식물방제와 검역의 발전을 위해서 F.A.O를 비롯한 많은 관련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하며 회원국들의 효과적인 활동과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사) 아·태지역내 농작물별 주요 병해충과 경제 병해충의 목록을 별도로 추가 변경 보완 한다.

보리 혼식 실천하여

내 몸튼튼 나라부강